

#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http://www.kmi.re.kr)

발행일 2023. 7. 27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3.7



##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12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20

###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 컨테이너 정기노선 역대 최다 287개 기록
- 2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 3 포항항, 포항지역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투자 지속적인 증가

###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중국,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무역항 개방 수준 제고
- 2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만료 후 우크라이나 항만 공습
- 3 호주, 뉴캐슬항 친환경 에너지 경제 발전 추진

###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컨테이너,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 컨테이너 실 해역 운송시험 실시
- 2 시멘트, 상반기 출하량 전년 대비 약 15% 증가
- 3 유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석유 수요 '30년 정점 전망

## 1. 국내 항만 동향

### 1) 부산항

#### ① 부산항 컨테이너 정기노선 역대 최대 287개 기록<sup>1)</sup>

- » '23년 부산항을 기항하는 국제 컨테이너 정기노선은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주당 287개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함
- 이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로 인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줄어들었던 기항 노선이 회복된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트라 아시아 지역 내 노선이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중국 52개(+4), 일본 7개(+5), 동남아시아 56개(+2)를 기록함
- 미주와 유럽 노선은 각각 50개, 1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큰 변동은 없음
- » 아시아 주요 20개 항만과의 정기노선의 경우 포트클랑, 닝보 등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감소세가 많은 반면, 부산항은 증가세를 기록
- '23년 아시아 주요 항만 정기 노선은 싱가포르 318개(-13), 상하이 282개(-4), 선전 257개(-26), 포트클랑 236개(+11), 닝보 214개(+10), 홍콩 181개(-6), 카오슝 163개(-12)로 나타남
- » 정기노선 증가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역할 증대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만큼 BPA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항만 운영으로 정기 노선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 ② 부산항만공사(BPA), 환적운송시스템(TSS) 2차 시범운영 추진<sup>2)</sup>


- » BPA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TSS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힘
- TSS는 터미널과 운영사의 정보를 사전에 연계하여, 복수의 차량과 화물 정보를 전송, 화물차량의 터미널 진입 시 최적의 화물 배정을 지원하여 타부두 환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임
- » 2차 시범운영에서는 1차 시범운영 당시 확인된 시스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오류 개선 사항을 공유, 참여사를 확대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함
- 1차 시범운영 당시 차량 대기시간 6분(25%)감소, 목표 물량 20% 초과 처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1차 시범운영에서 총 5개사(터미널 3개사, 운송사2개사)가 참여한 것과 비교하여 2차 시범운영에서는 총 11개사(터미널 5개사, 운송사 6개사)가 참여함
- 해당 6개의 운송사가 처리하는 부산항 ITT 물동량이 전체 ITT 물동량의 약 31%(22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2차 시범운영으로 인한 효율성 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 부산항만공사(2023.06.21.),<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816&idx=30172>(2023.07.14. 검색)

2) 부산항만공사(2023.07.05.),<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816&idx=30268>(2023.07.14. 검색)

» 특히, 2차 시범운행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TSS 시스템의 활용성이 높은 터미널과 운영사를 선정하여 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환적운송시스템(TSS) 효과>

구 분	기 준(AS IS)	변 경(TO BE)
재조작 최소화	개별 운송오더로 재조작 불가피 	오더 그룹화로 최상단 화물 배정 
	인력 의존 배차, 편도운송 (복화율 低) 	시스템 자동배차, 왕복운송 (복화율 高) 

자료 : 부산항만공사,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816&idx=30268>(2023.07.14. 검색)



## 2) 인천항

### ① 관세청,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sup>3)</sup>

- » 인천항의 아암물류2단지 1·1단계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공고함
- IPA는 지난 '20년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1·1단계를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됨
- 이후 관세청의 지정요건 및 현장 실사 검토를 받은 후 최종 종합보세구역 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이에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됨
- 또한 화물의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암물류 2단지 1·1단계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자료: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 7. 12), p.3

### ② 인천항, '23년도 상반기 중고차 수출 실적 전년 대비 50.8% 증가한 26만 4,050대를 기록함<sup>4)</sup>

- »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항의 6월 누적 중고자동차 수출은 약 26만대로 하반기에도 수출 호황이 유지된다면 중고차 수출 역사상 최대 실적인 약 5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호황은 자동차 운반선 부족의 해소와 전용 선박운송에서 컨테이너 운송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주효하다고 판단됨
- 자동차 운송 전용선박은 신차를 우선으로 적재한 후 남은 공간에 중고차를 싣고 수출하기 때문에 적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해왔음. '23년도 인천항 중고차 수출 물동량의 약 80%를 컨테이너 수송 방식으로 처리함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7.12.),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4903&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3.7.17.검색)

4) 한국경제(2023.7.1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71062631> (2023.7.17. 검색)

### 3) 여수·광양항

#### ① 광양항 자동차 수출입 지원 강화로 물동량 증대<sup>5)</sup>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23년 5월까지 광양항의 자동차 화물이 45만 3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했다고 밝힘

- 광양항의 자동차 화물은 올해 5월 누적 기준 45만 3천 대로, 전년 동기 34만 대 대비하여 약 10만 3천대(33.2%) 증가함
-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한 가운데 자동차의 수출 증가가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동차부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YGPA는 지난 '18년 컨부두 3-2단계에 자동차 전용부두를 정식 개장한 이후 자동차 수출입 전진기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오고 있음
- 전라남도, 광양시 등과 협력하여 자동차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자동차부두 선석 조정 및 부두 임시 사용 승인 등 안정적인 자동차 수출입 기능을 지원하고 있음
- YGPA는 자동차부두 운영사와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적극적인 마케팅 실시를 통해 올해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07.05.), [https://www.ygpa.or.kr/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479&category=](https://www.ygpa.or.kr/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479&category=) (2023.07.14. 검색)



#### 4) 울산항

##### ① 울산항만공사(UPA), 남신항 2단계 부두 1선석 설계용역 착수<sup>6)</sup>

- » 약 650억 원을 투입해 UPA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두 1선석(3만 톤급)의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임
- UPA는 설계용역비 약 38억 원을 투입해 올해 8월부터 1년간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 완료 후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24년 12월~'25년 초 착공할 계획임
- 개발되는 부두는 3만 톤급 철재부두 1선석이며, 하역능력은 151만 톤임
- 신항 2단계 사업에는 이번 설계용역에 착수한 3만 톤급 1선석 외에도 오일허브 2단계 2선석(20만 톤급), 유류부두 1선석(20만 톤급), 석탄부두 1선석(4만 톤급), 기타광석부두 2선석(5만 톤급, 2만 톤급), 목재부두 1선석(5만 톤급) 등 총 8개 선석이 포함됨
- 나머지 부두들은 2025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을 앞두고 재검토 용역에 들어갔으며, UPA는 7월 중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24년 4월 재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남신항 2단계 나머지 부두들의 개발 방향도 구체화 될 전망임

6) 경상일보(2023.07.13.),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887>(2023.07.14. 검색)



## 5) 평택·당진항

### ① ‘평택함’ 서해대교 하부 이전 완료,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본격 추진<sup>7)</sup>

- » 평택시는 지난 9일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PNCT)에 거치 중인 ‘평택함’을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으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힘
- 평택시는 ‘평택함’을 해군 홍보관 및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2월 해군으로부터 인도받아 평택항 PNCT에 거치해 왔음
- 해군의 국내 최초 수영체험관 목적의 구조변경 승인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부지 활용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허가를 이행하였으며, 서해대교 하부 현 부지의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 9일에 이전을 완료함
- 이번 ‘평택함’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함 내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수영장 조성 등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 개장할 계획임
- 한편 ‘평택함’은 전장 86m, 선폭 18m 규모로 해군의 선박구조와 예인 임무를 수행하다 2016년 12월 퇴역하였으며, 주요 수행 임무는 태안 기름유출 방제작전, 천안함 인양작전, 세월호 인양작전 등이 있음

### ② 경기평택항만공사,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 개최<sup>8)</sup>

- »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6일 태국 방콕에서 재태국 한인 물류인과 태국 수출입 기업 등을 초청해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이번 설명회는 평택-태국 간 컨테이너 항로 활성화 및 동남아 물동량 확대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태국 현지 해운물류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됨
- 이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운영현황과 경쟁력을,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은 평택항 부두운영 서비스를 발표했으며, 참석자에게 항만을 다각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평택항의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함
- 현재 평택-태국간 컨테이너 운영항로는 2개 항로로, 장금상선과 흥아라인이 운영하는 BTS(인천-평택-부산-호치민-방콕-람차방-호치민)와 남성해운과 동진상선, 장금상선이 운영하는 NTX(평택-광양-부산-호치민-람차방-방콕-람차방-호치민-인천-평택)가 있으며, 두 항로 모두 개설 이래 물동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2023년도에는 삼성전자의 평택-동남아(태국, 베트남) 물동량 증가로 상승 추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태국 현지 설명회 개최 외에도 G-FAIR 아세안플러스 평택항 홍보부스 운영, 현지 기업 간담회와 같은 평택항 잠재고객 유치 위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포트세일즈를 추진해나갈 계획임

7) 평택시 보도자료(2023.07.11.),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Idx=290463&ptIdx=90>(2023.07.17. 검색)

8) 평택시 보도자료(2023.07.13.), <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65&pageId=K006003001>(2023.07.16. 검색)



## 6) 포항항

### ① 포항지역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투자 지속적인 증가<sup>9)</sup>

- ▶▶ 13일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는 '28년까지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2조 원을 들여 양극소재 일관 생산공장인 '에코프로 블루밸리 캠퍼스'를 건립할 예정임
- 또 다른 이차전지 대표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은 '25년까지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5천억 원을 투자해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을 증설하기로 지난 5월 협약했으며, 같은날 중국 화유코발트와 신규 합작법인을 설립해 '27년까지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인 전구체와 원료인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을 짓기로 함
- 더불어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이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건설에 3천억 원, 포스코가 이차전지용 산소플랜트 건설에 1천억 원, 동국산업이 이차전지 케이스용 니켈 도금강판 생산설비 건설에 1,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올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포항지역 투자는 약 5조 5천억 원을 기록함
- 이러한 투자로 항만 물류 인프라를 통한 이차전지 소재의 유통 및 운송이 활발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포항시는 '30년까지 포항에서 생산되는 양극재가 연간 100만 톤으로, 전 세계 수요량 605만 톤의 1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9) 연합뉴스(2023.07.16.), <https://m.yna.co.kr/view/AKR20230714106900053?section=local/all>(2023.07.18. 검색)

## 7) 동해·묵호항

### ① 동해항 8월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예정<sup>10)</sup>

- ▶▶ '23년 8월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부산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전용선 국제항로가 8월 개설될 예정임
- 7월 4일 동해시는 강원도, 선사 및 하역사와 '동해항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 정기항로에는 길이 121m, 컨테이너 700TEU를 적재할 수 있는 동영해운의 8,000톤급 컨테이너 전용선이 취항함
- 동해항은 '21년 하버크레인이 도입돼 컨테이너 하역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이번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를 통해 동해항의 북방경제권과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물류 다각화를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 동해시는 이번 국제정기항로에 이어 2단계 컨테이너 전용선을 추가 투입해 연해주 무역항과 교역을 확대, 3단계는 중국·일본·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부산항(환적)~동해항(기항)~연해주항로를 개설할 계획임
- 동해항의 주요 수출품은 중고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및 화장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우드펠릿, 조사료<sup>11)</sup> 및 수산물 등임

10) 강원도민일보(2023.07.04.),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1933>(2023.07.06. 검색)

11) 조사료(糞 사료)는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은 적고 조섬유의 함량이 18% 이상인 청초, 건초, 사일리지 등으로 일반적으로 부피에 비하여 가소화영양소총량(TDN)이 적고 셀룰로오스 같은 섬유질이 많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입자도를 가지는 사료(농촌진흥청, 2023.07.06. 검색)



## 8) 목포항

### 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신안 병풍도에 새 등대 설치·운영<sup>12)</sup>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보기선착장 인근에 ‘병풍도북방등표’를 새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힘

- 이 등대는 국비 6억 원이 투입된 직경 6.0m, 높이 13.6m 규모의 원형콘크리트 구조물로, 야간에는 10초에 2번 연속으로 불을 밝혀 주위에 암초, 천소(淺小) 등 고립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함
- 등대 설치 해역은 암초가 섬을 오가는 선박의 합류 지점에 축구장 크기로 넓게 퍼져 있어 만조 시나 시계 불량 시 김 양식 관리선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로 지적되어 왔음
- 이번에 설치된 등대는 항해자의 이정표 역할과 함께 10월 병풍도 만드라미 축제나 12사도 순례길을 찾는 관광객을 실은 여객선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07.10.),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ldx=1316&bbsidx=99193>(2023.07.16.  
 검색)



## 9) 대산항

### ① 대형 크루즈선 입항 가능성 검토<sup>13)</sup>

- » 서산시는 대산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검토 결과, 크루즈선의 대산항 입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힘
- 이탈리아의 크루즈선사인 코스타 크루즈(COSTA CRUISES)에서 대산항 현장을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검토함
- 서산시는 크루즈선 유치에 위해 지난 '20년부터 출입국 세관, 검역 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 선사 등과 협의를 해왔음
- » 항로는 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여행하고 국내에서 내리는 방식이며, 추후 기항 방식을 계획할 예정임
- 승객 3,700여 명은 여행사인 롯데관광개발이 관리하는 크루즈 회원 약 4만 명과 서울 및 수도권 외 크루즈 마니아들로 채울 계획임
- 방충제 보강, 계선주 확보, 배를 타고 내리는 갭웨이 확보 등 크루즈 기항을 위한 설비 보완에 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등의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설비 보완을 위한 공사는 약 5개월이 예상됨

13) 충청투데이(2023.06.21.),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955>(2023.07.14. 검색)



## 10) 군산항

### ① '23년도 군산항 상반기 자동차 수출실적 24만 6천대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이상 증가<sup>14)</sup>

- » '23년도 상반기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실적은 자동차 환적물동량의 호조에 힘입어 급증,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1년 33만 2천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6월 누적물동량 기준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물동량은 23만 9천대로 약 97.2% 비중을 차지함, 현재 군산항에는 총 1만 6천대를 야적할 수 있는 8만 8천평 규모의 야적장이 조성되어 있음
-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는 군산항의 자동차 물동량 대비 야적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군산항 배후에 야적장으로 개발할 부지가 부족하여 신규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신규 자동차 물동량 유치를 위해 평택·당진항처럼 기존 야적장 부지에 주차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14) 전북도민일보 (2023.7.9.),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532>, (2023.7.17 검색)

## 11) 마산항

### 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마산항을 통해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sup>15)</sup>

- » 7월 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마산항을 통해 폴란드로 다연장로켓 '천무'의 초도 물량을 선적해 수출함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2년 10월 폴란드 정부와 천무 발사대 288대와 유도탄, 장사거리탄 등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맺었으며 '22년 11월 약 35억 달러(4조 5,000억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함
- 천무의 수출이 시작되고 올해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정부의 2차 실행계획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어 마산항의 수출 물동량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22년 4분기와 '23년 1분기에 K9 자주포가 폴란드로 수출되었으며 추가 인도 물량이 계획되어 있어 마산항 수출 물동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15) 뉴시스(2023.07.05.),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704\\_0002363957#\\_PA\(2023.07.10. 검색\)](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704_0002363957#_PA(2023.07.10. 검색))

## 2. 국외 항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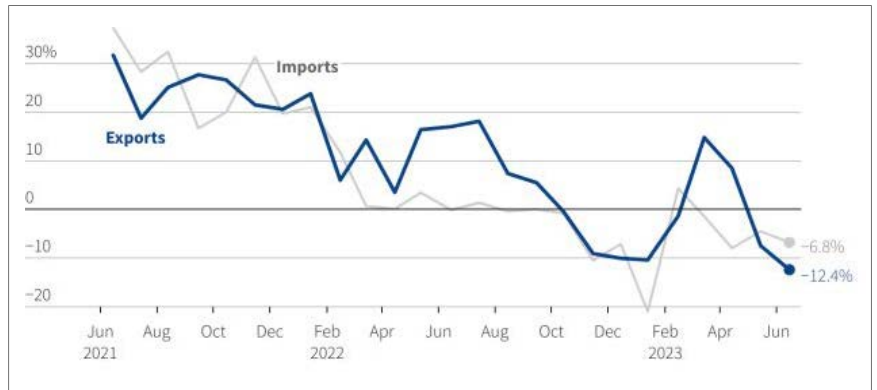
### 1) 중국

#### ① '23년 6월 중국 수출액 증가율 3년 4개월만에 최저치 기록<sup>16)</sup>

- » 중국 세관에 따르면 '23년 6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년 1월(-17.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해외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내 상품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이러한 세계적인 상품 수요 침체는 계속해서 수출에 부담이 될 것이며 하반기 경제 회복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올 상반기 주요 무역 상대국 중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러시아로의 수출은 완만한 수준에서 증가함
- » 수입액 역시 시장 예상치(-4.0%)를 하회한 6.8%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지속적인 내수 침체를 반영하고 있음

16) REUTERS(2023.07.13.),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june-exports-fall-124-imports-drop-68-2023-07-13/\(2023.07.14 검색\)](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june-exports-fall-124-imports-drop-68-2023-07-13/(2023.07.14 검색))

중국의 수출입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 :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june-exports-fall-124-imports-drop-68-2023-07-13/\(2023.07.14 검색\)](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june-exports-fall-124-imports-drop-68-2023-07-13/(2023.07.14 검색))



- »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이 정부가 목표로 한 5%가 아닌 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중국 내 공장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디플레이션 직면까지 갔으며, 생산자 물가는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등 올해 경제 성장을 둔화가 전망됨
- » 한편, 이러한 중국 내 수출입 금액 감소 영향으로 한국의 對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 올해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23년 5월 기준, 중국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이는 4월 누적 기준 2.4% 증가율 대비 하락한 것으로 6월 역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② 중국, 자유무역지대(FTZ) 및 자유무역항(FTP) 개방 수준 제고<sup>17)</sup>

- » 중국은 최근 국제 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발맞추기 위해 FTZ와 FTP 개방 수준을 제고하는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함
- 해당 조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포함하여 베이징,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등 여건이 갖춰진 자유무역지대 시범지역에 우선 적용한 후 안정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 » 개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춤
- 시범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중국 금융 기관들에게만 제공됐던 특정 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고, 수리를 목적으로 출항한 후 FTZ와 FTP로 재운송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함
- 또한, 해당 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 기업의 고위 임원의 경우 체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완화함
- » 한편, 이러한 개방 확대 조치는 중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및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임

17) CGTN(2023.07.11), <https://news.cgtn.com/news/2023-07-11/China-moves-to-align-with-high-standard-international-trade-rules-1llyHumR5tK/index.html>(2023.07.14.검색)



## 2) 아시아

### ①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완전 전기선박의 상세 설계기준 발표<sup>18)</sup>

- » MPA는 지난 7월 10일, 50년 탄소배출 제로(zer) 달성을 위해 완전 전기선박(full-electric harbour craft, e-HC)의 상세 설계기준이 포함된 제안서 제출 요청 의향서(EOI)를 발표함
- EOI에는 싱가포르항의 탈탄소화 목표에 따라 허용 가능한 e-HC에 대한 설계 기준(선박건조, 에너지 저장기술, 사이버 보안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MPA는 향후 싱가포르 Maritime institute와 e-HC에 대한 설계 기준과 기능을 보완할 계획임
- 이번 EOI 발표는 '30년부터 싱가포르 모든 해역에서 운항하는 신규 선박은 완전 전기식 또는 바이오 연료로 운항해야한다는 기존 MPA 규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② 일본, 랜섬웨어 공격으로 나고야항 화물 지연<sup>19)</sup>

- » 일본 최대 항만인 나고야항은 지난 7월 4일 컨테이너 터미널 시스템이 랜섬웨어<sup>20)</sup>에 감염되어 컨테이너 운반 작업이 중단되는 등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함
- 나고야항은 일본 전체 무역 거래의 약 10%를 차지하는 일본에서 가장 크고 거래가 활발한 무역항으로, 일본의 최대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자동차의 주요 수출 창구임
- 랜섬웨어는 나고야항 내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을 네트워크로 제어하는 '나고야항 통합 터미널시스템(NUTS)'에 장애를 일으킴
- NUTS는 본선 하역, 플레닝, 컨테이너 화물 보관, 컨테이너 반출입, 야드작업, 보세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99년부터 가동을 시작함
- 나고야항관리조합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사이버 공격을 실행한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터미널 위원회 및 아이치현 경찰 본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행히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자동차선박의 반출입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18) porttechnology (2023.7.11.),<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ingapore-authority-seeks-proposal-on-fully-electric-harbour-craft/> (2023.7.17. 검색)

19) BNN Bloomberg(2023.07.05.),<https://www.bnnbloomberg.ca/ransomware-attack-hits-japan-s-biggest-port-delaying-cargo-1.1941669> (2023.07.14. 검색)

20)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후,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의미함



## 3) 미주

① NWSA, SSA 터미널 리퍼(reefer)컨테이너 수용능력 확대<sup>21)</sup>

» 시애틀항 및 타코마항을 운영하는 NWSA(Northwest Seaport Alliance)는 시애틀항 SSA 터미널에 리퍼컨테이너를 위한 신규 전력공급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임

- SSA 터미널의 전력공급 인프라 확보를 통해 최대 960개의 신규 리퍼컨테이너 장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SSA 터미널은 해당 사업을 위해 공급업체를 통해 4개의 변전설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공급업체는 미국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DOT) 해양관리청(Maritime Administration, MARAD)의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보조금(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me, PIDP)의 지원을 받을 예정임

② 캐나다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 파업 13일만에 잠정 합의<sup>22)23)24)</sup>

» 캐나다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 ILWU) 7천여 명은 노동 협상 결렬 후, 공식적으로 파업을 시작함

- ILWU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해사협회(British Columbia Maritime Employers Association, BCMEA)와 노동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을 시작함
- 캐나다 서안을 대표하는 밴쿠버항과 프린스루퍼트항에서 상당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 경제 전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임
- 캐나다는 두 항만을 통해 천연자원과 상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노사 양측의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쟁점 사항은 자동화, 근로자 생활비, 계약직 사용 등이며, 파업의 원인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임

- ILWU는 지난 2월부터 합의를 위해 BCMEA의 협력을 희망했으나, BCMEA 측이 공정하고 균형잡힌 단체 협약을 위한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함
- BCMEA는 공정한 거래를 목표로 제안과 입장을 계속 진전시켜 왔고 핵심 우선순위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거듭 노력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며, 연방 중재자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함
- 다만, ILWU는 노사 협상에 연방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파업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함

21) Port Technology(2023.06.30.),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sa-terminals-to-boost-reefer-containers-capacity/>(2023.07.17. 검색)

22) Port Technology(2023.07.0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lwu-canada-initiates-strikes/>(2023.07.17. 검색)

23) Port Technology(2023.07.1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us-ilwu-rejects-diverted-vessels-amid-canada-strikes/>(2023.07.17. 검색)

24) Port Technology(2023.07.1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anadas-west-coast-port-strikes-end-with-tentative-agreement/>(2023.07.17. 검색)



- » 미국 ILWU는 파업 중인 캐나다 서안 항만 우회 컨테이너선의 컨테이너 하역을 거부하면서 캐나다 항만 혼잡 우려가 가중됨
- 캐나다 ILWU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 ILWU는 캐나다 ILWU와 연대하여 캐나다행 화물의 하역을 거절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국제 연안 노동자 협회(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ILA)의 지원을 받고 있음
- ILA는 이미 '파업 중인 항구에서 항로를 변경한 컨테이너선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 미주 항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급망이 안정되어가고 방학 및 개학 등 수요가 많은 성수기를 앞둔 시기에 또다시 항만 혼잡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됨

» 13일간 파업으로 격화된 양측의 대립은 4년간의 임금협상이 잠정 합의되면서 종료됨

- BCMEA와 캐나다 ILWU는 4년 계약에 잠정 합의했으며, 새로운 합의에는 부두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터미널의 정기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권한 확대가 포함됨
- 7월 1일 시작하여 13일에 종료된 태평양 연안 캐나다 항만의 노동자 파업으로 캐나다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하루 최대 5억 캐나다 달러(약 3억 7,900만 달러)의 무역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 4) 유럽

##### ① '22년 유럽 해운 부문 탄소 배출량 3년 중 최대치 기록<sup>25)</sup>

- » 7월 13일 발표된 유럽해사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EU 영해 내를 항해하는 선박은 '22년에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1억 2,820만 mtCO<sub>2</sub>e를 배출했으며, 이는 '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 각각 3,720만 mtCO<sub>2</sub>e와 1,740만 mtCO<sub>2</sub>e를 배출하여 가장 큰 배출원이었으나, 전년 대비 증가세가 컸던 선종은 LNG 탱커와 유람선으로 나타남
- 특히 LNG선의 경우 '21년 대비 50% 증가한 1,010만 mtCO<sub>2</sub>e를 배출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과 LNG를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한편, EU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규정을 EU 권역 내에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24년부터 EU ETS(EU 배출권 거래제)에 해상 운송을 포함할 계획이며, '25년부터 해양 연료 규제를 위한 FuelEU Maritime를 도입할 예정임

##### ②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만료 후 우크라이나 항만 공습<sup>26)</sup>

- » 흑해 곡물 거래 협정이 만료된 지 하루 만인 1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만을 타격함
- 러시아는 러시아 점령지역인 크림반도의 도로 교량을 무너뜨린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오데사의 연료 저장고와 해상드론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힘
- 지난 월요일 교량이 무너진 후, 유엔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식량 가격 상승과 기아 증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곡물 협정에서 탈퇴함
- 러시아는 러시아 식품 및 비료의 수출이 서방 제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류, 보험, 지불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만 곡물 거래 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 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의 공격으로 여러 가옥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주요 항만인 오데사항 기반 시설이 손상됐으며, 또 다른 항만인 미콜라이프항에도 심각한 화재가 발생함

25) S&P Global Commodity Insights(2023.07.14.),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market-insights/latest-news/energy-transition/071423-boost-in-lng-activity-drives-up-eu-shipping-emissions-in-2022>(2023.07.19. 검색)

26) Reuters(2023.07.18.),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strikes-ukraine-grain-port-after-pulling-out-export-deal-2023-07-18/>(2023.07.18. 검색)



## 5) 오세아니아

### ① 호주 뉴캐슬항, 친환경 에너지 경제 발전 추진<sup>27)28)</sup>

» 뉴캐슬항은 친환경 에너지 경제 발전 추진을 위해 호주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 업무협약을 통해 뉴캐슬항은 호주 정부로부터 1억 달러의 지원금을 확보하였으며 이 지원금은 친환경 에너지 센터 운영에 사용될 예정임
- 뉴캐슬항의 친환경 에너지 센터는 '30년까지 다양한 친환경 전략을 제시하며 220헥타르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플랫폼과 에너지 저장, 수송 및 수출을 위한 공유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임
- 뉴캐슬항은 친환경 에너지 센터 운영을 위해 15개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미쓰비시 중공업은 에너지 생산, 수출, 보급 및 에너지 운송, 인프라, 농업, 교육 및 연구 등 주요 산업 지원을 약속함

» 또한 미쓰이 O.S.K 라인(MOL, Mitsui O.S.K. Lines Ltd.)도 뉴캐슬항의 친환경 에너지 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함

- 뉴캐슬항에는 300척 이상의 MOL 운영 선박이 기항하고 있으며 MOL 그룹의 환경 전략에 따라 '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27) Port technology(2023.07.1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newcastle-australia-mitsubishi-heavy-industries-push-for-clean-energy-economy/>(2023.07.14. 검색)

28) Hellenic shipping news(2023.07.14.),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mol-to-join-port-of-newcastles-clean-energy-precinct-construction-project-in-australia-cooperating-in-ocean-transport-of-green-hydrogen-and-ammonia/>(2023.07.14. 검색)



## 6) 아프리카

### ①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화물차 방화 테러로 인한 물품 운송 지체 발생<sup>29)</sup>

» 7월 14일 남아공 더반항의 주요 진입도로인 N3에서 21대의 화물차에 방화 테러가 발생해 더반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작업 중단으로 이어짐

- N3는 더반항과 리처드베이항을 잇는 주요 연결도로로 이번 테러를 통해 남아공의 보안 문제가 대두됨
- 더반 상공회의소는 화물차 방화 테러, 주요 연결도로 차단 및 터미널 운영 중단으로 매달 약 8억 루피(약 123억 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함
- '21년 남아공 반란 이후 지속적인 테러로 인해 운송업자의 보험 비용이 1,000% 이상 증가했으며 화물차 1대당 약 300만 루피(약 4천 600만 원)~700만 루피(약 1억 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함

» 주요 화주, 선사와 수출입 국가(미국과 중국)는 더반항의 보안 문제로 인해 잠비크의 베이라항,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항, 나미비아의 월비스 베이항 및 앙골라의 로비토항과 같은 대체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

29) Freight news(2023.07.13.), <https://www.freightnews.co.za/article/trouble-logistics-closing-door-south-africas-gateway-status>(2023.07.15. 검색)



### 3. 품목 및 산업 동향

####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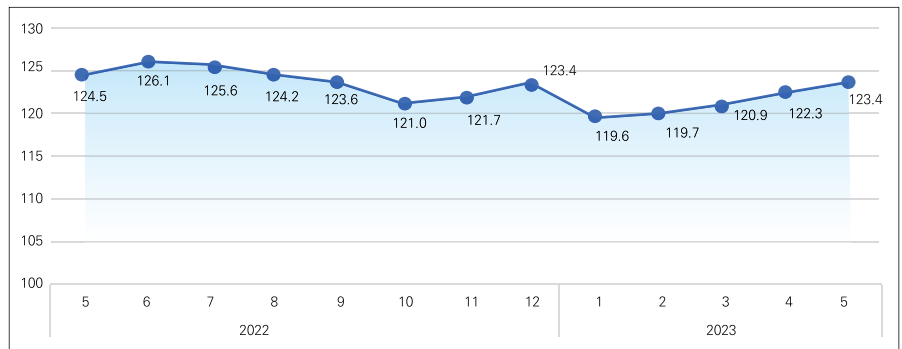
#### ① '23년 5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0.9% 감소<sup>30)</sup>

» '23년 5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하였으나, 전월 대비 0.9%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 기록

- 중국 항만에서 물동량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중국 항만물동량 처리지수는 4월 136.4에서 5월 140.5로 4.1포인트 증가함
- 유럽의 경우 컨테이너 물동량이 4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5월에 다시 감소하여, 5월 항만물동량 처리지수도 108.4(4월 기준)에서 104.1로 하락함
- 다만, 유럽의 항만물동량 처리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컨테이너 처리량이 안정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30)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may-2023>(2023.07.17. 검색)

####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컨테이너	124.5	126.1	125.6	124.2	123.6	121.0	121.7	123.4	119.6	119.7	120.9	122.3	123.4	0.9	-0.9

주: 2015=100  
자료: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may-2023>(2023.07.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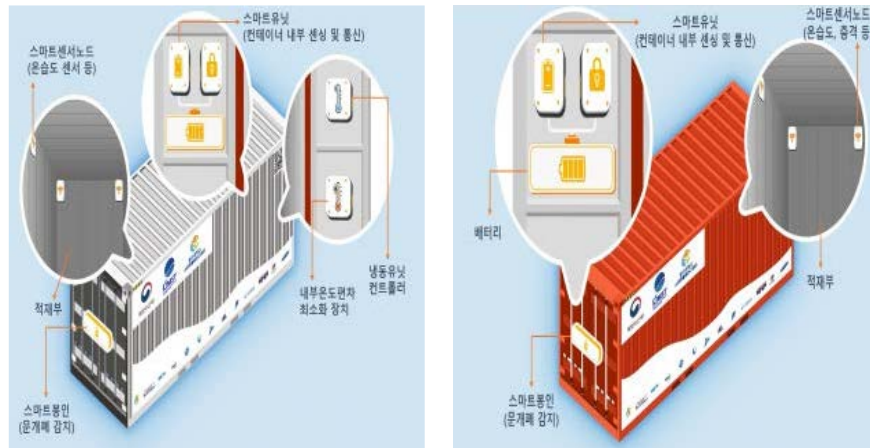


## ②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컨테이너 실 해역 운송시험 실시<sup>31)</sup>

- » 해양수산부 ‘스마트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HMM과 동아대학교 공동으로 제작한 스마트컨테이너 시제품이 7월 13일부터 약 3개월간 실 해역 운송시험을 시작함
- 해당 운송시험은 부산신항~싱가포르~인도~브라질을 거쳐 다시 부산신항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실시할 예정임
- 시험 운송 기간 동안 연구진은 스마트컨테이너에 내장된 통신 모듈을 통해 화물의 데이터(위치, 온도, 습도 등)를 선박으로 원활하게 전달하는지 등을 검증할 예정이며, 선박이 전송받은 데이터는 다시 ‘스마트컨테이너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 예정임
- » 해당 시범 운송 개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24년에 상용화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스마트컨테이너가 상용화되면 반도체 등 민감한 제품 및 냉동·냉장 식품의 안정적인 운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07.13.),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2351&menuSeq=971&bbsSeq=10>(2023.07.14 검색)

### 스마트컨테이너 시제품 구성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2351&menuSeq=971&bbsSeq=10>(2023.07.14 검색)

## 2) 양곡

### ① 6월 식용 곡물 수입단가 큰 폭의 하락세 기록, 옥수수 사료용 수입단가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폭 기록<sup>32)</sup>

» 식용 밀의 6월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2.4% 하락한 390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식용 옥수수의 수입단가(347달러/톤)도 전년 대비 15.8% 하락함

- 6월 사료용 옥수수 수입단가도 전년 대비 10.8% 하락한 337달러/톤을 기록한 반면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는 353달러/톤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함

### ② 6월 사료원료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7.0% 하락한 170.4를 기록함<sup>33)</sup>

» 옥수수와 대두박 등 주요 원료 수입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6월 사료원료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7.0% 전월대비 2.7% 하락함

- 3개월 이내의 선행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는 운임정보와 원료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높은 지표로 알려져 있음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2023.6. 30.),[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279/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279/page/1), (2023.7.17 검색)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2023.6. 30.),[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279/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279/page/1), (2023.7.17 검색)

## 수입사료원료 가격지수 추이





###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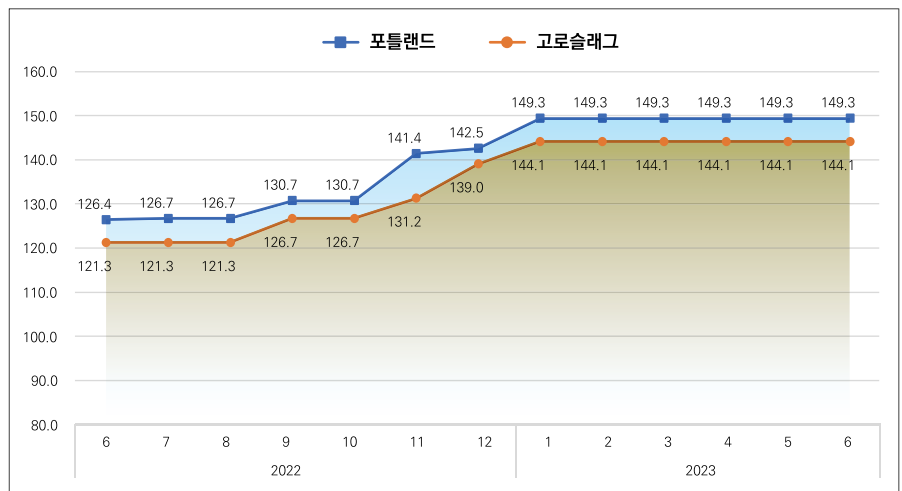
#### ① 6월 생산자물가지수 6개월째 보합세 유지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149.3p, 144.1p를 기록,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8.8%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1월 이후 6개월 동안 증감없이 보합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26.4	126.4	126.7	126.7	130.7	130.7	141.4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0.0	18.1
고로슬래그	121.3	121.3	121.3	121.3	126.7	126.7	131.2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0.0	18.8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3.07.25.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3.07.25. 검색))



## ②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 전년 대비 15% 증가<sup>34)</sup>

»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국내 주요 시멘트 생산 2개 사의 '23년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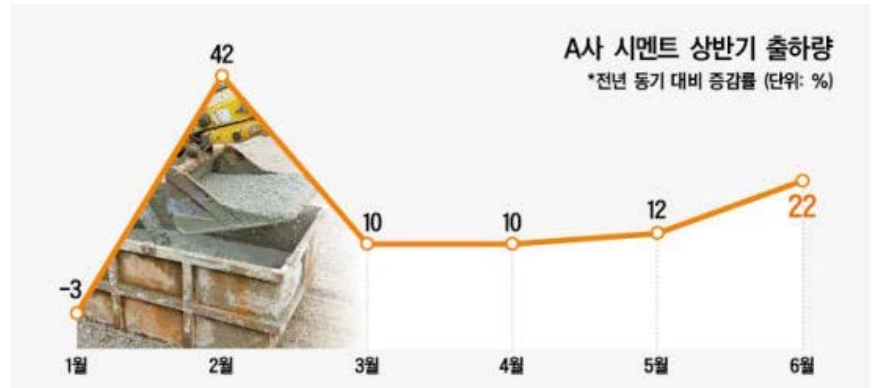
- 2월에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고, 공사 성수기인 3~5월에는 10~12%, 6월에는 약 25% 증가함
- 전방산업인 건설 경기침체로 인해 착공 면적은 '22년 하반기 10.6%, '23년 상반기 28.7%가 감소했으며 시멘트 공종 업계인 철근 수요도 약 7% 감소함

» 시멘트 업계는 콘크리트 품질 기준 강화로 인한 시멘트 단위수요량 증가, 양질의 골재 공급량 부족 및 탄소중립의 여파로 인해 출하량이 증가했다고 분석함

- 시멘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레미콘업계에서 시멘트 배합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콘크리트 배합 비율을 검수하면서 시멘트 단위수요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국토교통부가 '23년 1월부터 골재 내 점토 함유량 기준을 0.25~1%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시멘트 배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제강사들의 고로 폐쇄와 화력발전소 감소로 인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슬래그 및 플라이 애시 등 분체량 감소가 시멘트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판단됨

34) 대한경제(2023.07.12.),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7111434051090599](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7111434051090599)(2023.07.13 검색)

### 시멘트사의 상반기 출하량 증감률



자료: 대한경제,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7111434051090599](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7111434051090599)(2023.07.1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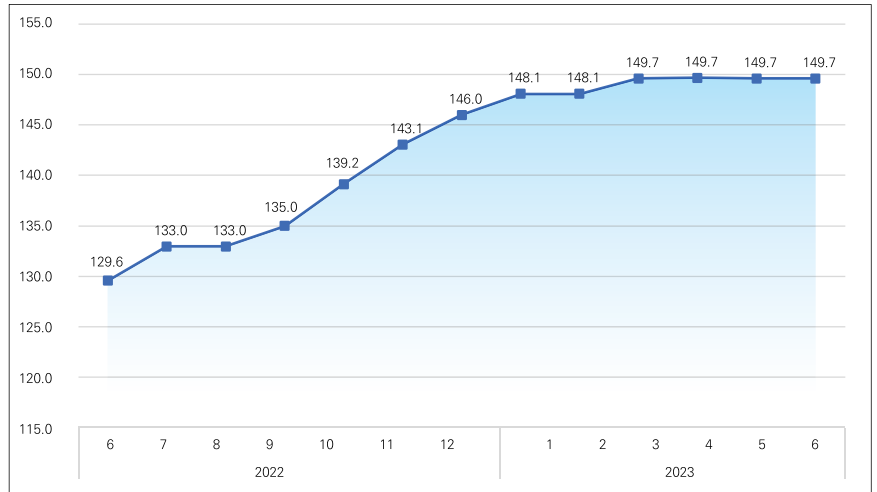
#### 4) 모래

#### ①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149.7p 기록

»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 '23년 2월 이후 4개월째 증감없이 보합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29.4	129.6	133.0	133.0	135.0	139.2	143.1	146.0	148.1	148.1	149.7	149.7	149.7	0.0	15.5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07.25.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07.25. 검색))

#### ② 인천 굴업도와 덕적도 인근 바다모래 채취 허가 절차 진행 중<sup>35)</sup>

» 인천시는 '23년 3월 굴업·덕적 해역 7개 광구를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 향후 5년간 약 2,968만 m<sup>3</sup>의 바다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임

- 현재 웅진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웅진군 허가 아래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인천녹색연합은 7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 경기도의 해안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바다모래 채취 허가에 앞서 해안·해저지형 변화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단위: 천 m<sup>3</sup>)

연도별 바다골재 채취 예정 물량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채취 예정 물량	4,805	5,950	6,720	6,296	5,900

자료: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4860\(2023.07.16. 검색\)](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4860(2023.07.16. 검색))

35) 경기신문(2023.07.06.),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4860\(2023.07.16. 검색\)](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4860(2023.07.16. 검색))

## 5) 석탄

### ① '23년 6월 기준 유연탄 가격은 하락세를 기록<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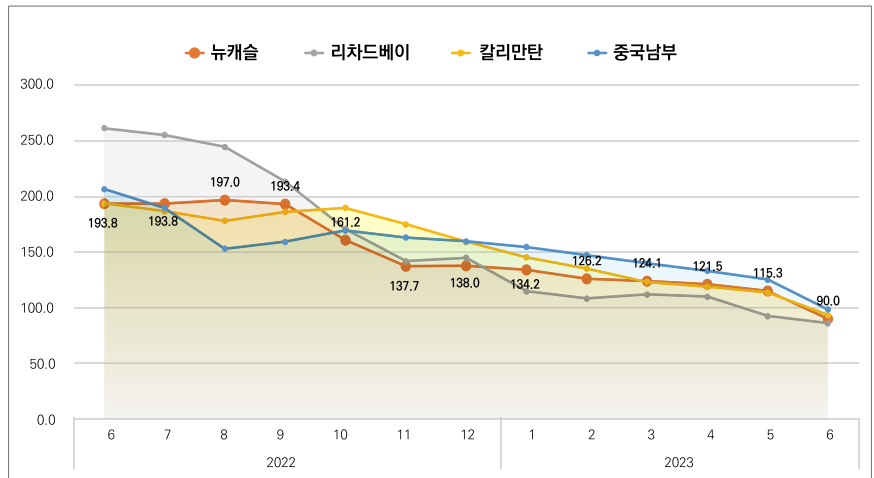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6월 평균가는 89.99달러로 전월 대비 22.0% 하락세를 기록함

- 지역별 연료탄 가격은 호주 뉴캐슬산 22.0%,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 17.8%, 남아공 리차드베이산 7.2% 하락함(전월 대비 기준)
- 유연탄 가격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발표에 따라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세가 둔화된 가운데 주요 생산국의 물류 개선에 따른 공급 증가와 계절적 수요 하락 등으로 연료탄 가격하방압력이 발생함

36)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https://www.komis.or.kr/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 (2023.07.24. 검색)

(단위: 달러/톤)

#### 유연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93.8	193.8	197.0	193.4	161.2	137.7	138.0	134.2	126.2	124.1	121.5	115.3	90.0	-22.0	-53.6
리차드베이	262.1	256.0	245.1	213.9	171.0	142.2	145.2	114.9	108.5	112.2	110.0	92.7	86.0	-7.2	-67.2
칼리만탄	194.0	187.0	178.5	186.5	190.1	175.3	159.6	145.5	135.5	123.3	119.0	113.7	93.5	-17.8	-51.8
중국남부	206.9	190.1	153.2	159.6	169.8	163.4	159.9	155.0	147.7	140.1	133.4	125.4	98.6	-21.4	-52.4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② 베트남, 올해 석탄발전 최대 15% 확대<sup>37)</sup>

» 베트남은 북부지방 수력발전소들이 장기간 가뭄에 따른 수위저하로 가동에 차질을 빚는 등 '23년 하반기 전력난에 대비해 석탄발전을 전년대비 최대 15% 늘릴 계획임

- 베트남 국영기업인 베트남석탄광물공사(Vinacomin: 비나코민)의 상반기 발전용 석탄 공급량은 약 2,1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함
- 이러한 추세라면 23년도 발전용 석탄 공급량이 최대 2,9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초 계약물량보다 약 120만 톤 늘어난 양임
- 또한 국방부 산하 동박공사(Dong Bac)는 상반기 570만 톤의 발전용 석탄을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865만 톤의 발전용 석탄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됨
- 두 회사의 석탄 공급량은 23년 기준 총 4,835만 톤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최대 1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수위 감소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북부지방의 수력발전소들이 정상적인 가동을 못한데에서 기인함
- 베트남의 전력당국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6~8월 하절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늘려 하반기 전력난에 대응할 계획임

37) Inside VINA(2023.07.11.),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51>  
(2023.07.13. 검색)



## 6) 철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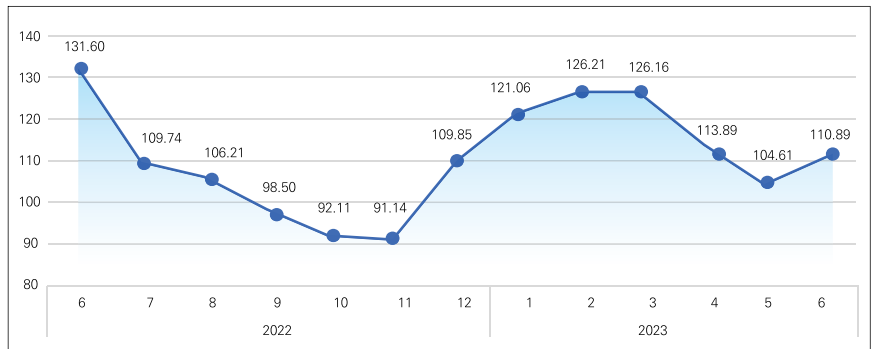
### ① '23년 6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한 110.9달러 기록

» '23년 6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10.9달러로 전월 대비 6.0%,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

- 중국 내 수요 부진으로 3월 이후 철광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6월 반등하여 톤당 110 달러대를 회복함
- 이는 중국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반등으로 보이나, 철광석 가격은 중국의 대표적인 경기 지표로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달러/톤)

####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31.6	109.7	106.2	98.5	92.1	91.1	109.9	121.1	126.2	126.2	113.9	104.6	110.9	6.0	-15.7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07.14. 검색)



## ② BMI社, 세계 철광석 생산량 증가 전망<sup>38)</sup>

» 글로벌 경제 및 산업 시장 분석을 하는 리서치 회사인 BMI社は 브라질과 호주 광산의 증산에 힘입어 '23년~'27년 연평균 철광석 생산량을 2.3%로 전망함

- 브라질의 경우 '19년 대형 광미댐 붕괴사고로 철광석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산 및 신규 광산 개발 등으로 향후 5년 철광석 생산량 증가율이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호주의 경우는 같은 기간 0.2%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우 호주산 철광석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5년까지 철광석 생산량을 10.7억 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38) KOMIS(2023.07.05.), [https://www.komis.or.kr/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https://www.komis.or.kr/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3.07.14 검색)





##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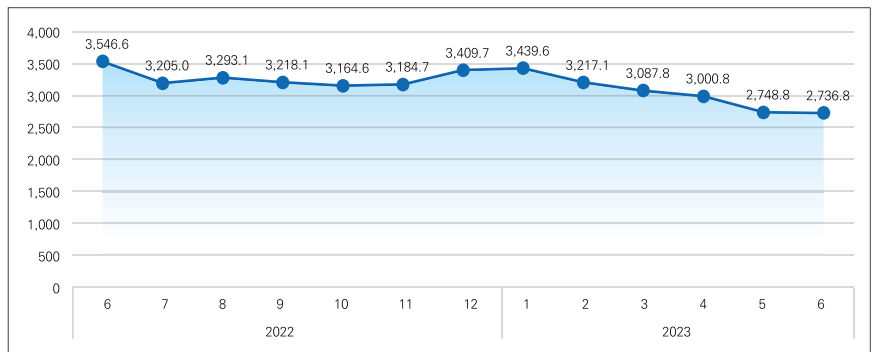
### ① 6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2,736.8로 전월 대비 0.4% 하락<sup>39)</sup>

▶ '23년 6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22.8% 하락한 2,736.8을 기록함

- 중국의 부동산 부문 등 경기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美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로 자원시장의 하방리스크가 발생함

39)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https://www.komis.or.kr/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 (2023.07.24. 검색)

#### 광물종합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3,546.6	3,205.0	3,293.1	3,218.1	3,164.6	3,184.7	3,409.7	3,439.6	3,217.1	3,087.8	3,000.8	2,748.8	2,736.8	-0.4	-22.8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억원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② 한-미-몽 핵심광물 3자 협의체 출범<sup>40)</sup>

- » 한국과 미국, 몽골 3개국은 지난 6월 27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핵심광물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몽 3국은 광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한-몽, 미-몽 양자간 추진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3국간 공통 관심지역을 발굴하여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 한편 이번 회의에는 민간 관계자도 참석하여 몽골 광물 자원의 현황과 잠재력, 세계 상품 시장 동향과 투자 관련 정보를 교환함
  - 특히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구리 외에 희토류, 리튬 등 배터리 소재 핵심광물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함
  - 한-미-몽 3국은 핵심광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고 3국간 실무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0월 2째주 개최 예정인 「몽골 광물 주간」계기로, 한-미-몽 B2B 라운드테이블을 주선하여 협력사업 발굴을 지원해 나가기로 함

4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7.13),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7.18. 검색)



## 8) 목재

### ① 2023년 1~5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87.5만 m<sup>3</sup>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sup>41)</sup>

» 국내 건설 및 건축 침체로 재고 부담이 가중되어 수입물량 감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가 감소하여 목재제품 가격의 하락 및 보험세가 진행됨

- '23년 국내 목재 품목별 누적 수입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원목은 24.3%, 제재목은 18.6%, 성형목재는 13.2%, 합판은 18.4%, 목재펠릿은 1.3% 감소함

품목(단위)	2023년 누적(1~4월)	2022년 누적(1~4월)	증감률(%)
원목(천m <sup>3</sup> )	875	1,156	-24.3
제재목(천m <sup>3</sup> )	644	791	-18.6
성형목재(톤)	33,631	38,727	-13.2
합판(천m <sup>3</sup> )	522	640	-18.4
파티클보드(천m <sup>3</sup> )	500	649	-23.0
섬유판(천m <sup>3</sup> )	101	99	+2.0
목재펠릿(천 톤)	1,551	1,572	-1.3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06.20.),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Xt6qymScd1aaZ6ETPag7YWn2APAhieSSI96aHKVfaSIK5gyxUaqR98bNnacnaO.frswas01\\_servlet\\_engine5?nttid=3184665&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7.16.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Xt6qymScd1aaZ6ETPag7YWn2APAhieSSI96aHKVfaSIK5gyxUaqR98bNnacnaO.frswas01_servlet_engine5?nttid=3184665&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7.1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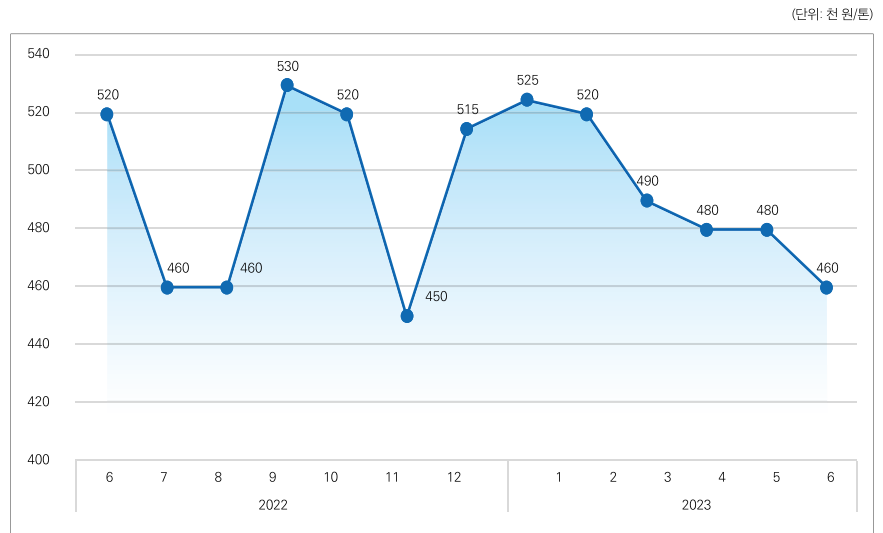


## 9) 고철

### ① 6월, 국내 고철 가격 하락세 기록

- » 국내 6월 생철 가격은 톤당 46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4.2%, 전년 동월 대비 11.5% 하락한 수준임
- '23년 1월 톤당 52만 5천 원을 기록한 생철 가격은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5개월 연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520	460	460	530	520	450	515	525	520	490	480	480	460	-4.2	-11.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 ② 미국, 고급 고철 수급난 지속 전망<sup>42)</sup>

- » 미국 고로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는 지난 6월 말 글로벌 스틸 다이내믹스 포럼에서, 미국 내 높은 전기료 비중으로 인해 향후에도 고급 고철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철강업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로 설비 대폭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 내 신규 제조업 투자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수급난에 대처하면서 탄소중립과 고품질 철강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고급 스크랩의 대체재인 DRI(직접환원철)와 HBI(열간성형환원철)의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저등급 고철에서 구리 등의 불순물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42) EBN(2023.06.26.), <https://chem.ebn.co.kr/news/view/1582198>(2023.07.18. 검색)

##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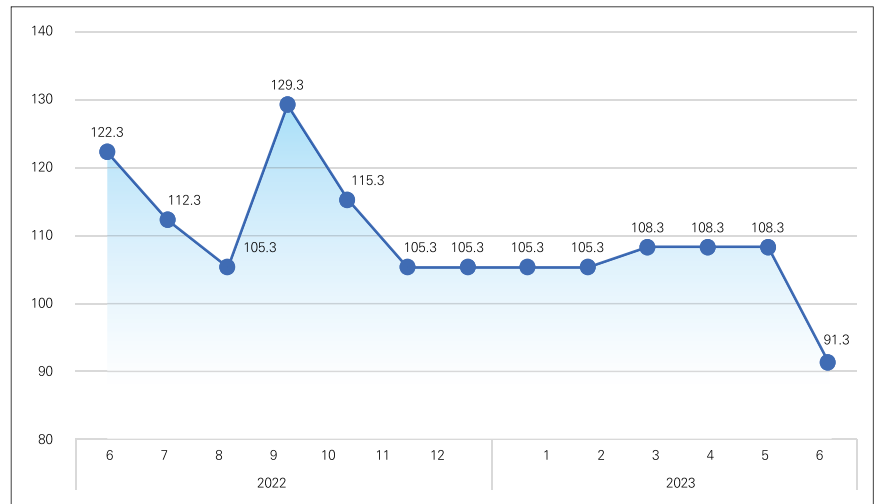
### ① 국내 열연코일 가격 대폭 감소

» 6월 열연코일(3.0×4.0×8.0mm) 가격은 전월 대비 15.7%, 전년 동월 대비 25.3% 하락한 톤당 91만 3천 원을 기록함

- 지속된 수요 부진과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지난 '22년 11월부터 7개월간 톤당 100만 원대를 유지하던 열연코일 가격은 6월 90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함

(단위: 만 원/톤)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22.3	112.3	105.3	129.3	115.3	105.3	105.3	105.3	105.3	108.3	108.3	108.3	91.3	-15.7	-25.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 ② 중국산 H형강 상반기 수입 물동량 급증<sup>43)</sup>

» 올해 상반기 중국산 H형강은 9만 1,816톤이 수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8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엔저를 바탕으로 국내 H형강 수입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산 H형강 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난해 말부터 수출 오퍼 가격이 감소하며 경쟁력을 회복한 중국산 H형강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산 수입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국내 점유율에서 중국산 H형강은 36.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산은 31.4%를 기록함
- 일본산 H형강의 경우 올해 상반기 7만 9,565톤이 수입되며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함
- 올해 상반기 전체 H형강 수입은 25만 3,716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 한편, 동기간 평균 수입 가격은 지난해 톤당 731.0달러에서 올해 톤당 679.9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3) 에너지경제(2023.07.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710010002358\(2023.07.18.검색\)](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710010002358(2023.07.18.검색))



## 11) 자동차

### ① 한국자동차연구원, 폴란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기술 협력<sup>44)</sup>

»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 14일 폴란드 바르샤바 공과대학교, 우카시에비치 연구소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폴란드투자무역청이 주최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양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을 통해 국내 기업의 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경쟁력 축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바르샤바 공대가 협력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차량용 반도체 분야 공동 협력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기관 간 워크숍, 인적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우카시에비치 연구소와는 ▲CCAM과 관련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 기획 ▲CCAM용 5G 및 6G 네트워크 기술 활용한 첨단 차량 간 통신 연구 ▲선행 V2X를 위한 사이버 보안 연구 ▲기관 간 워크숍, 인적교류 등 지원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한편 바르샤바 공과대학교는 중부 유럽내 대표적인 기술 연구기관이며, 우카시에비치 연구소는 유럽 내 세 번째로 큰 연구소로 자동차산업 및 과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정부 산하 연구소로서 차량 안전-EMC·시뮬레이션·배기가스 분석 등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4)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7.07),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89](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89)(2023.07.18. 검색)





## 12) 잡화

### ① '23년 6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 46.0로 전월 대비(46.9) 하락함, 8개월 연속 제조업 경기 축소<sup>45)</sup>

» 6월 제조업 부문 신규수주(45.6→42.6)와 생산(51.1→46.7) 고용(51.4→48.1) 모두 전월대비 축소됨<sup>53)</sup>

- ISM 관계자에 따르면 제조업 수요는 여전히 적고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용 감소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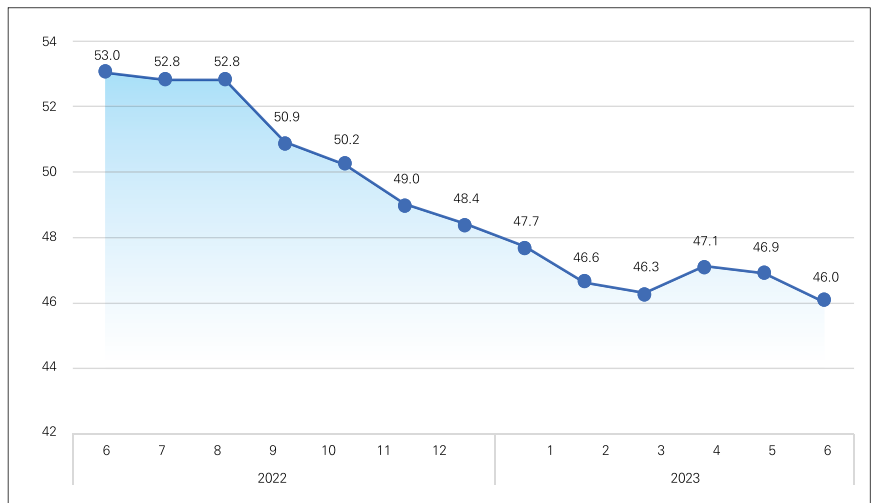
»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sup>53)</sup>

- ISM의 PMI 지수는 제조업체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상태, 물가 등을 종합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과해 수치화함

-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45) Trading Economics (2023.7.3.),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3.7.17 검색)

## 미국 PMI(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자료: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 13)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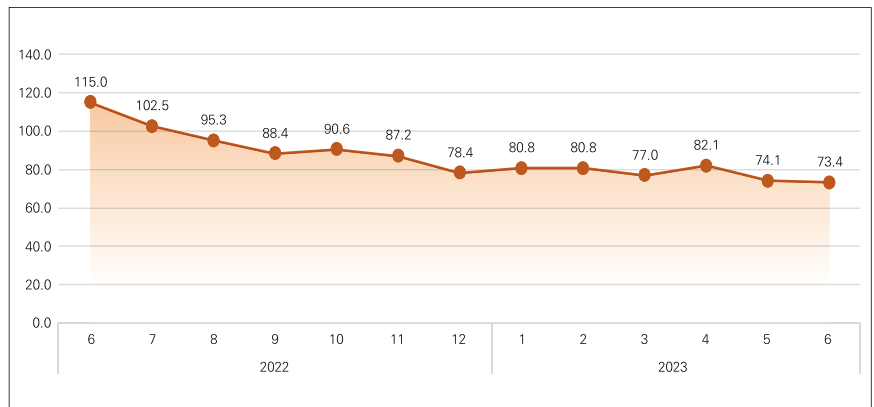
#### ① 6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

» 월별 유가는 '22년 6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왔으며, '23년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6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급등했던 유가가 긴축 장기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와 중국의 리오프닝, 러시아 및 OPEC+의 추가 감산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시장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단위: US\$/bbl, %)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1133	1031	96.6	91.0	91.2	86.3	77.2	80.4	82.1	78.5	83.4	75.0	75.0	0.0	-338
Brent	1175	1051	97.7	90.6	93.6	90.9	81.3	83.9	83.5	79.2	83.4	75.7	75.0	-0.9	-362
WTI	1143	99.4	91.5	83.8	87.0	84.4	76.5	78.2	76.9	73.4	79.4	71.6	70.3	-1.9	-385
평균	1150	1025	95.3	88.4	90.6	87.2	78.4	80.8	80.8	77.0	82.1	74.1	73.4	-0.9	-362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7.18. 검색)



## ②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 석유 수요 '30년 정점 전망'<sup>47)</sup>

- » IEA는 중기 전망 보고서(OE 2023)에서 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수요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어 세계 석유 수요는 '30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은 대부분 중국과 인도가 차지할 것이며, OECD 수요는 자동차 연비 개선 및 전기차 보급 확대에 의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초반에는 항공연료 사용 증가, 후반에는 석유화학원료 수요 증가가 소비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수송부문 수요는 '2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 IEA는 주로 미국의 셰일오일 및 브라질, 가이아나 등 비OPEC+ 생산 증가가 세계 석유 공급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함
- 중동의 세계 석유시장 점유율은 '23년 30%에서 '28년 32%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OPEC+ 23개국의 생산능력은 러시아 생산 감소로 '22년부터 '28년까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도로운송 연료소비 감소와 항공유 및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소비가 증가하면서 향후 세계 정유 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됨
- IEA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아시아 무역이 증가하는 등 세계 석유 무역 흐름이 큰 변화를 보였으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 OPEC+ 생산정책 방향, 중국 정유산업 정책이 향후 석유시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 ③ 사우디 아라비아, 원유 감산으로 경제 둔화 조짐<sup>48)</sup>

- » 사우디 아라비아는 올해 하반기 유가가 상승하지 못할 경우 원유 감산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함
- 사우디는 '22년 많은 원유 생산량(1,050만 b/d)과 고유가로 인해 미래 프로젝트(네옴시티 등) 투자 가능했으며, 약 9%의 경제성장과 10년 만에 재정흑자를 기록함
- 다만, 올해 하반기 대규모 감산을 통해 유가를 부양하려는 사우디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지난해 G20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에서 올해에는 최악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경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유가가 사우디의 재정 균형을 위한 예상 가격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석유 경제 둔화는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
- 사우디는 석유 수익 감소로 인해 이미 올해 경제 둔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 발표된 OPEC+의 감산 합의로 인해 IMF가 5월에 추정한 3.1%에서 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47)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6.22),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7.18.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7.18. 검색))

4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7.13),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7.18.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7.18. 검색))

- 즉, 사우디가 연말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긴축을 계속 추진하면 올해 경제는 1%p 하락하고 9월에 자발적 감산을 철회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0.1%p 둔화에 그칠 전망이다

### ③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19년 이후 최고치 기록<sup>49)</sup>

-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3년 미국의 원유생산량이 '19년 기록한 1,232만 b/d를 상회하는 1,261만 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원유생산량 증가는 석유 공급을 축소하려는 OPEC+의 노력을 상쇄할 것으로 보임
-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승한 유가 억제를 위해 미국 정부는 미국의 석유 생산업체와 OPEC에 증산을 요구했으나,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OPEC 회원국들은 '22년 11월부터 생산량 감산을 결정한 바 있음
- ※ OPEC+ 9개국은 5월부터 생산량 116만 b/d의 자발적 감산을 발표했으며, 6월 4일 OPEC+ 회의에서 현행 감산을 '24년까지 연장하고, 사우디는 7~8월 100만 b/d 독자적 감산을 발표함
- '22년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셰일 오일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어 미국의 원유 생산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 다만, 비전통자원인 셰일오일은 시추·생산기술 향상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유가가 낮아져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미국의 시추 및 수압파쇄 비용은 '14년 이후 36% 감소하여 생산자들의 원유 생산 손익분기점이 낮아짐

49) 한국석유공사 펌프로넷(2023.07.13),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7.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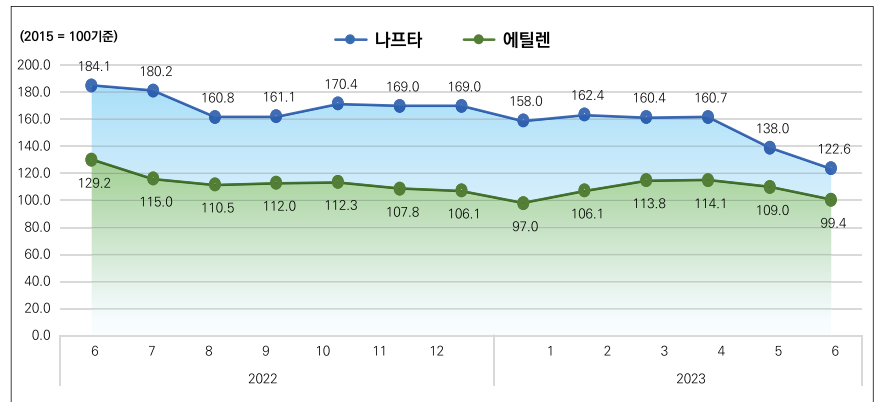


## 14) 화학공업생산품

### ① 6월 생산자물가지수, 나프타 및 에틸렌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하락

- » 유가 상승으로 동반 상승했던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올해 다시 증가하던 에틸렌은 최근 2개월 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임
- '23년부터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가 정체 현상을 보이다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에틸렌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추세로 전환함
- 중국 석유화학공장 신규 가동에 따른 경쟁 심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업황이 부진한 상황임

####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84.1	180.2	160.8	161.1	170.4	169.0	169.0	158.0	162.4	160.4	160.7	138.0	122.6	-11.1	-33.4
에틸렌	129.2	115.0	110.5	112.0	112.3	107.8	106.1	97.0	106.1	113.8	114.1	109.0	99.4	-8.8	-23.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j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5.25.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j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5.25. 검색))

## ② 한화토탈에너지스, 주요 설비 정기보수 완료<sup>50)51)</sup>

»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지난 4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정기보수를 끝내고 재가동을 안정화함

- 공정의 특성상 석유화학공장은 365일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평소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설비를 점검하기 어려움
- 따라서 3~4년마다 정기보수를 통해 주요 공정을 정밀 검사하고, 설비·촉매 점검과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최근 두 달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주요 시설인 NCC공장과 수지제품 생산공장 등을 점검함
- 이번 정기보수에는 누적 기준 약 15만 명, 일 평균 4,0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어 정기보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 ③ 중국 에틸렌·프로필렌 물량 공세에 석유화학업계 직격탄<sup>52)</sup>

» 올해 중국에서 석유화학 공장들이 대규모로 완공되면서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심해질 전망이다

- 올해 중국 석유화학 공장들이 대규모로 완공되면서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업계는 에틸렌·프로필렌 스프레드의 하락 추이가 지속되고 있어 중국발 물량공세가 더해질 경우, 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컨설팅업체 ICIS에 따르면, 석유화학 기초원료 생산공장 20곳 이상이 올해 중국에 완공될 예정임
- 그간 중국에서 플라스틱 등의 수요가 운송 및 산업용 연료 수요를 넘어서자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지난 5월 시노펙은 278억 위안을 들여 '25년까지 뤼양 지역에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사우디아람코는 석유화학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중국 룡생석유화학에 투자하고 있음

## ④ 석유화학 추진하는 정유업계, 업황 부진으로 고민<sup>53)54)</sup>

» 석유화학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정유업계는 업황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들은 신사업 일환으로 석유화학 사업에 조단위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황 불황의 지속 정도에 따라 업체들은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올 하반기부터 석유화학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고,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초 소재 사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수 있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손실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50) EBN(2023.06.26.), <https://chem.ebn.co.kr/news/view/1582198>(2023.07.18. 검색)

51)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6.26.),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80](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80)(2023.07.18. 검색)

52) 에너지경제(2023.07.10.), <https://www.ekn.kr/web/view.php?k ey=20230710010002358>(2023.07.18. 검색)

53) 뉴시스(2023.07.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6\\_0002366012&clD=13001&plD=130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6_0002366012&clD=13001&plD=13000)(2023.07.18. 검색)

54)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7.07.),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89](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89)(2023.07.18. 검색)

» 석유화학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정유업계는 업황 불황으로 손실을 우려하고 있음

- GS칼텍스는 '18년 올레핀 시장 진출을 선언한 뒤 2조 7,000억원을 투입하여 여수에 올레핀 생산 시설(MFC)을 구축했으며, 연간 에틸렌 75만 톤, 폴리에틸렌 50만 톤, 프로필렌 41만 톤, 혼합C4유분 24만 톤 등의 생산능력을 갖추
- GS칼텍스는 MFC시설에서 생산하는 에틸렌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시장에 진출했으며 향후 다양한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임
- 에쓰오일은 9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사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6월 완공 예정임
- 에쓰오일은 사힌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의 비중을 기존 12%에서 25%로 늘릴 계획이며, 주요 시설은 기초유분 생산설비인 스팀 크래커임
- 에쓰오일은 원유와 중질유를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여 스팀 크래커에 연료로 공급하며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할 계획임
- HD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 현대케미칼을 설립하여 '19년 충남 대산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중질유 기반의 석유화학 설비 HPC 설비를 갖추고 연산 에틸렌 85만 톤, 프로필렌 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음
- LG화학은 성장성이 떨어지는 석유사업 대신 배터리, 친환경 소재, 신약 등 3대 신사업으로 주력 사업 교체를 선언한 바 있으며, 롯데케미칼도 첨단소재 비중을 늘리는 등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뒤늦게 석유화학 사업에 뛰어든 정유업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음

» 하반기는 전방산업의 성수기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 상승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 자급률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음

##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3. 7. 27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